

2012  
September 28

#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 포커스

미국 의료기관 M&A 현황과 대응

### 정책동향

- [미국] 미 공화당, 의료기기 판매세 철폐 촉구
- [영국] 영국 정부, '3인 부모 체외수정' 허용 검토
- [일본] 일 아이치현, DNA 채취 사업 적극 추진
- [중동] UAE, 응급의료 자국 인력 양성에 주력

### 산업동향

- [글로벌] 미 사이버로닉스, 독 의료기기 업체 세르보메드에 720만불 투자
- [EU] 스웨덴 예테보리대, 조산 예측 혈액 검사법 개발
- [아시아] 미 IFF, 싱가포르에 첨단 향수 공장 설립
- [영국] 영 에보큐티스, 화장품 동물실험 대체 도구 '랩스킨' 개발

### 신규보고서

- [일본] 일본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제언
- [영국] 영국 네일케어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

## 포커스

- 미국 의료기관 M&A 현황과 대응 ..... 1

## 정책동향

- [미국] 미 공화당, 의료기기 판매세 철폐 촉구 ..... 5
- [미국] 미 건강보험료 인상률, 물가상승률 2배 육박 ..... 5
- [영국] 영국 정부, '3인 부모 제외수정' 허용 검토 ..... 6
- [호주] 호주 민간병원, 분만 시 과잉진료 의혹 ..... 6
- [일본] 일 아이치현, DNA 채취 사업 적극 추진 ..... 7
- [일본] 일 후생성, 이바라키의료센터 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 7
- [중동] UAE, 응급의료 자국 인력 양성에 주력 ..... 8
- [중앙아] 투르크메니스탄, '11~'15년 의료산업개발 프로그램 시행 ..... 8

## 산업동향

- [글로벌] 미 사이버로닉스, 독 의료기기 업체 세르보메드에 720만불 투자 ..... 9
- [글로벌] 독 베링거, 퀘벡 바이러스 연구센터 폐쇄 결정 ..... 9
- [중동] UAE 뷰티업체 VLCC, 오만에서 '기업 웰니스 프로그램' 시행 ..... 10
- [미국] 미 텍사스대, RSV의 암세포 공격 기능 발견 ..... 10
- [EU ] 스웨덴 예테보리대, 조산 예측 혈액 검사법 개발 ..... 11
- [글로벌] 일 에자이, 미 사빈연구소와 소외열대질환 백신 개발 제휴 ..... 11
- [아시아] 미 IFF, 싱가포르에 첨단 향수 공장 설립 ..... 12
- [영국] 영 에보큐티스, 화장품 동물실험 대체 도구 '랩스킨' 개발 ..... 12

## 신규보고서

- [일본] 일본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제언 ..... 13
- [영국] 영국 네일케어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 ..... 14

## 포커스

### 미국 의료기관 M&A 현황과 대응

최근 미국 의료산업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비용 절감, 품질 개선, 효율성 증대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통합 추세가 심화. 본 자료는 미국 컨설팅사인 언스트 앤 영 (Ernst & Young)이 '12년 8월 발표한 의료산업보고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New Horizon Collaboration)'을 통해 미국 의료산업의 M&A 현황과 배경을 살펴보고 규제당국의 대응 상황을 고찰

#### □ 미국 의료산업의 통합 현황 및 배경

- (현황) 최근 미국 의료산업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비용 절감, 품질 개선, 효율성 증대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통합 추세가 심화
  - '10년 미국 4천985개 커뮤니티 종합병원(community hospital) 중 59%가 일정한 의료기관 시스템\*에 편입
    - ※ (참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병원(hospital)은 1백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을 의미하며, 병상은 없지만 의사가 진료하는 의원은 프라이빗 또는 피지션 오피스(private/physician office), 클리닉(clinic)으로 지칭
    - \* 하나의 중심기관이 두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소유, 임대, 지원, 계약관리하는 조직 시스템
  - '12년 1/4분기 미국 종합병원 M&A는 23건으로 전기대비 10%, 전년 동기비 5% 증가(Irving Levin Associates)
    - \* 종합병원 경영진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8%가 M&A를 추진하거나 모색 중이라고 응답(HeathLeaders Media, '12.1)
  - '07~'08년 미국 전체 의료행위 중 단독 의료행위(solo-practice, 의사 1명)는 25%, 소그룹 의료행위(small group practice, 의사 2~4명)는 21%로 '01년 37%, 26%에 비해 비중이 감소
    - \* 11명 이상의 의사(고용의사)가 참여한 그룹 의료행위는 전체의 1%에 불과했으나 향후 이러한 그룹 의료행위가 늘어나는 반면 단독·소그룹 의료행위는 지속적 감소가 예상

- (배경) 자본 접근성, 인구 노령화, 의료비 절감 등이 의료산업 통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본 접근성 취약) 최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가치보상제 (pay-for-value)가 확대되면 자본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이나 제휴를 모색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인구 노령화 대응)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기관들이 인구변화에 대처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통합이 필요
    - \* 미국 65세 이상 인구는 '10년 4천만명에서 '50년 8천8백만명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인구층의 절반 정도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 상태에 처할 것으로 전망
  - (보험사의 종합병원-의원 관계 변화 요구) 보험사들은 의료 품질 개선, 종합병원 입원비 절감, 재입원 방지 등을 위해 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일반 의원들과의 협력 도모를 강조
    - \* 환자수 변화, 보험사로부터의 낮은 지급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의원들도 직접 고용, 전문서비스협력, 합작 등을 통해 종합병원 협력 시스템으로 편입 중
  - (첨단기술 도입) 미국 연방정부가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해 IT 등의 첨단기술을 통한 의료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을 장려하고 있어, 소형 의료기관들이 관련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현상이 심화

## □ 미국 의료산업의 통합 사례

- (보험사의 의사그룹 인수) 대형 보험사들은 자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기존의 의사 조직을 인수
  - (사례)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은 기존의 의료제공자그룹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사관리기업(physician management company) 출범, 의사의 직접 고용 등도 시행
    - ※ (참고) 의료제공자 그룹(medical group)은 의사가 참여하는 연합 조직으로 의사가 해당 의료제공자 그룹을 소유하고 다른 의사들을 고용하는 형태

- **(보험사의 의료기관 인수)** 보험사들은 통합적 헬스 네트워크(health network) 구축, 사업 다각화, 시장력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 인수도 추진
  - **(사례)** 피츠버그 소재 의료보험사 하이마크(Highmark)는 이 지역 두번째 규모의 의료기관 체인인 웨스트 펜 앨러게이니 헬스 시스템 5개 종합병원을 매입할 계획
    - \* 하이마크의 웨스트 펜 종합병원 인수 계획은 다양한 규제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나, 법무부와 관련 연방기관들은 이러한 수직적 통합이 상당한 자본을 지역 최대의 의료 보험사에서 부실한 헬스 시스템(health system, 의료기관 연합체)으로 이전하는 데다 의료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조사를 종결
  
- **(종합병원의 의사그룹 인수)** 종합병원들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과 환자 기반 구축을 위해 의사그룹 인수를 추진
  - 의사들은 병원에 고용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제 3자 보험사와의 지급 협상에서 이전보다 많은 협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전자환자기록 등 인프라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
  - **(사례)** 피츠버그 대학교 메디컬 센터(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는 10개의 메디컬 오피스와 3개 응급진료센터를 보유한 의사그룹(physician group)을 인수
    - ※ **(참고)**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 center)는 바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평일, 휴일, 야간 등에 예약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의 치료를 주로 하는 응급실(emergency room)과는 달리 경증 환자를 대상
  
- **(종합병원의 보조의료기관과의 합병)**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이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보조, 급성기 이후(post-acute), 장기요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의 합병을 추진
  - **(사례)** 디트로이트 메디컬 센터(Detroit Medical Center)는 8개 급성기 이후 치료 전담 종합병원, 다수의 외래 시설과 함께 급성기 이후 치료 기관인 미시건 리허빌리테이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의료기관과의 급성기 이후 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

- (사모펀드의 의료산업 투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의료 지출 증가 등의 전망을 배경으로 '07년 이후 500개 이상의 사모펀드가 미국 의료산업에 투자를 단행
  - \* 사모펀드의 의료산업 투자는 '11년에만 459건, 790억불 규모
  -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의 투자 기간은 5~7년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의료 개혁이나 지불방식 변화 등이 사모펀드의 의료산업 전망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 의료산업의 파편화 정도가 높다는 점도 사모펀드의 의료산업 투자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사례) '10년 케르베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는 성장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자본이 필요했던 매사추세츠 주 제 2의 종합병원 시스템 카리타스 크리스티 헬스 케어를 인수

## □ 미국 반독점 규제기관의 대응

- (규제기관의 대응)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 등 미국 연방 기관들은 의료산업 M&A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나 가격 인상을 유발해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
  - 연방거래위는 의료기관 합병 전담 부서를 갖추고, 전체 보유 자원의 약 30%를 의료 관련 사안에 투입
  - \* 연간 연방거래위가 검토하는 종합병원 M&A는 평균적으로 20건
- (최근의 동향) 의료기관 합병과 관련된 연방거래위의 이의 제기를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많아지고, 의료기관들이 합병으로 인한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입증함으로써 승소하는 경우도 증가
  - 연방거래위는 의료기관의 병상이 100개 미만이거나 일일 평균 재원 환자수가 40명 미만인 경우 M&A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
  - △M&A 참여 의료기관이 시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미미하고,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며,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퇴출시키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 정책동향

### 미 공화당, 의료기기 판매세 철폐 촉구

- 미국 공화당 하원의회위원회(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 : NRCC)는 2.3%의 의료기기 판매세 철폐를 정부에 촉구
  - NRCC는 예정대로 '13년부터 의료기기 판매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
    - \* NRCC는 의료기기 판매세가 부과되면 미국 의료기기 산업 전체 근로자의 10%를 상회하는 4만3천명 정도가 일자리가 잃게 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의료기기 판매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2백억불을 조달,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 \*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NRCC의 주장을 일축[The Hill, 2012.09.21]

### 미 건강보험료 인상률, 물가상승률 2배 육박

- 미국 비영리 보건연구기관인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 KFF)은 고용주가 비용을 분담하고 근로자가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능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12년 근로자 1인당 건강보험료는 전년 대비 4% 인상된 1만5천745불로 인상률은 전년도 9%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근로자 임금 상승률 1.7%의 2배를 상회하고 물가상승률 2.3%의 2배에 육박
    - \* '02년 이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97%로 임금상승률 33%와 물가상승률 28%를 3배 정도 상회했으며, '99년 이후로 기간을 연장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72%로 임금상승률 47%와 물가상승률 38%를 무려 4배 가까이 상회
  - 한편 피보험자가 근로자 1인일 경우 연평균 보험료는 5천615불로 집계된 가운데, 상당수 고용주들은 비보험항목(deductibles)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New York Times, 2012.09.12]

## 영국 정부, '3인 부모 체외수정' 허용 검토

- 영국 정부는 3인의 부모에게서 신생아가 출생되는 것을 허용할 지 검토 중인 가운데 보건부 산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에 여론을 취합하라고 지시
  - 3인 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배아의 유전자 일부를 바꾸는 기술
    - \* 모계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상은 심장질환, 간·뇌 기능 이상 등 치명적 질환을 초래하며, 영국에서는 매년 신생아 6천5백명 중 1명꼴로 발생
  - 유전적으로 문제없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친모 난자의 핵을 주입하면 유전자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생아의 생물학적 부모가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이 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
  - HFEA는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Telegraph, 2012.09.18]

## 호주 민간병원, 분만 시 과잉진료 의혹

- 호주 민간병원의 자연분만율이 국공립병원보다 20% 포인트나 낮아 분만 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 웨스턴시드니대 연구팀이 지난 '00~'08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병원에서 출산한 20~34세 산모 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병원의 자연분만율은 15%로 국공립병원(35%)보다 무려 20% 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
    - \* 반면 분만시 하반신 마취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유도분만 비율은 민간병원이 53%와 31%로 국공립병원의 32%와 23%를 크게 능가
  - 연구팀은 의료비가 비싼 민간병원에서는 각종 의료적 도움을 활용한 출산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도입된 의료기술들이 남용되고 있다며 과잉진료 의혹을 제기
  -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 BMJ)에 발표 [Sydney Morning Herald, 2012.09.10]



## 일 아이치현, DNA 채취 사업 적극 추진

- 일본 아이치현(愛知県) 치과의사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DNA를 사전에 채취해 보관하는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아이치현 타하라시(田原市)와 토우카이시(東海市)도 소방대원의 DNA를 채취·보관하는 사업을 추진
    - 아이치현 치과의사회는 DNA 보관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 지난 '04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입안의 점막에서 DNA를 채취한 뒤 특수종이에 옮겨 6년간 보관하는 사업을 시행 중으로, '12년 9월10일 현재 1천346명의 DNA를 확보
    - 타하라시는 동부해안 담당 소방대원 252명의 DNA를 채취·보관하는 예산으로 127만7천엔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동해시도 소방대원 10명의 DNA를 올해 안에 채취·보관할 예정
    - 한편 일본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1만5천8백구의 사체 중 DNA 감정으로 신원이 파악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
- [読売新聞, 2012.09.13]

## 일 후생성, 이바라키의료센터 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도쿄대 의대 산하 이바라키의료센터(茨城医療センター)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
    - 후생성 조사 결과 이바라키의료센터는 지난 '08년 4월~'09년 5월 약 1억1천8백만엔의 의료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발각
    - 후생성이 대학 산하 의료센터에 대해 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정부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의료비가 전액 환자 부담이 되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 \* 또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향후 5년간 재지정이 불가
- 가스미가우라병원(霞ヶ浦病院)이 전신인 이바라키의료센터는 5백 병상 규모로 지난 '09년 4월 새로 출범했으며 지역 암 진료 거점병원으로 유명

[日本經濟新聞, 2012.09.21]

## UAE, 응급의료 자국 인력 양성에 주력

- UAE 정부는 의료 서비스에서 응급의료 부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외국 응급의료 인력을 수입해 대처하기보다 자국 인력을 양성해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
  - 이를 위해 UAE 보건부는 아부다비보건청(Health Authority-Abu Dhabi : HAAD)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 외국으로부터 선진 응급의료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의대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
    - \* 이러한 방침은 자국민 고용확대를 위한 ‘에미리트화(Emiratization)’ 정책의 일환
  - 특히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응급의료안전연구소(Emergency Care and Safety Institute),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s) 등 미국 의료 관계기관과 공동 수행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
  - UAE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오는 10월14~16일 아부다비메디컬콩그레스(Abu Dhabi Medical Congress : ADMC)에서 열리는 ‘제 10회 중동 응급의료 컨퍼런스(The 10th Middle East Emergency Medicine Conference)’에서 밝힐 예정

[AME Info, 2012.09.25]

## 투르크메니스탄, '11~'15년 의료산업개발 프로그램 시행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1~15년 국가의료산업개발프로그램(State Program on Development of the Medical Industry for 2011-2015)’ 관련 법령에 서명
  - 관련 법령은 보건의료산업부를 중심으로 의료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의료용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 보건의료산업부는 동 법령에 따라 수도 아슈하바트 인근 베르젠기(Berzengi) 시에는 미네랄 힐링 워터 생산설비, 아바단(Abadan)시에는 소독기 생산설비, 다쇼구즈(Dashoguz)시에는 소독봉대 생산설비 등을 건설할 계획
  - 이들 시설은 첨단 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외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될 예정이며, 보건의료산업부는 이들 업체에 투르크메니스탄 인력을 대상으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할 방침 [TURKMENISTAN.RU, 2012.09.15]

## 산업동향

### 미 사이버로닉스, 독 의료기기 업체 세르보메드에 720만불 투자

- 미국 첨단기술 업체 사이버로닉스(Cyberonics)가 독일 의료기기 업체 세르보메드(Cerbomed)에 720만불을 투자하기로 결정
  -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사이버로닉스는 난치성 간질환 및 치료 저항성 우울증(Treatment-Resistant Depression) 치료기기로 승인된 ‘미주신경자극기(VNS Therapy System)’를 개발한 업체
  - 독일 바이에른주 에르랑겐시에 위치한 세르보메드는 체내에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전증을 치료하는 신경자극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로, 이 회사가 개발한 네모스(Nemos)는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시판 중
  - 사이버로닉스는 네모스의 글로벌 유통·판매 독점권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
  - 댄 무어(Dan Moore) 사이버로닉스 회장 겸 CEO는 이번 투자로 자사의 의료기기 포트폴리오가 확대되었다며 의료기기 산업 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Houston Business Journal, 2012.09.21]

### 독 베링거, 퀘벡 바이러스 연구센터 폐쇄 결정

-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은 바이러스를 주로 연구해 온 캐나다 퀘벡 연구센터를 폐쇄하고 170명의 임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
  - 베링거는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며, 지금까지 베링거가 연구해 온 다른 치료제 분야들과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 부문은 다소 이른 감이 있었다고 설명
  - 그러나 퀘벡 연구센터 폐쇄와 관계없이 기존 HIV/AIDS 치료제 ‘비라문(Viramune)’과 ‘애틀버스(Aptivus)’ 등의 개발도상국 공급 등 환자 접근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 [Medical Marketing and Media, 2012.09.18]

## UAE 뷰티업체 VLCC, 오만에서 ‘기업 웰니스 프로그램’ 시행

- UAE의 웰니스·뷰티 서비스 전문업체인 VLCC사가 오만에서 ‘기업 웰니스 프로그램(Corporate Wellness Programme : CWP)’을 개시
  - VLCC는 오만 기업들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CWP를 시작했다고 설명
    - \* 웰니스 서비스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정서적·사회적·지적·신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완전한 상태를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
  - VLCC는 CWP를 통해 경영자와 근로자의 웰니스 상황을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해 이들이 상해·질병·결근 등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VLCC사는 현재 중동과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9개국 109개 도시에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는 총 6천여명 [Oman Daily Observer, 2012.09.17]

## 미 텍사스대, RSV의 암세포 공격 기능 발견

- 미국 텍사스의대 연구팀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 RSV)’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한다는 사실을 발견
  - 연구팀은 전립선암에 걸린 쥐에 RSV를 주입한 결과 1주일 만에 종양이 사라진 가운데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종양이 사라졌다고 설명
  - RSV를 종양에 직접 주입 혹은 복부를 통해 전신에 주입해도 효과는 동일했는데, 종양 제거를 위해서는 약물을 직접 주입하거나 타부위를 통해 전신으로 돌게 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보유
  - 연구팀은 RSV가 종양에서만 증식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발하는 ‘종양분해성 바이러스(oncolytic virus)’라고 소개
  - 한편 미국 생명공학 기업인 CZ 바이오메드(CZ BioMed)는 텍사스대 부설 사우스텍사스기술관리소(STTM)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RSV를 이용한 암치료법을 개발 중 [Healtheo360, 2012.09.18]

## 스웨덴 예테보리대, 조산 예측 혈액 검사법 개발

-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 의대 연구팀은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을 개발했다고 산부인과(Obstetrics and Gynaecology)지를 통해 발표
  - 이 혈액검사법은 조기에 자궁이 수축되기 시작된 임신여성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 두 가지 특정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으로, 1주일 내 분만으로 이어질 지 여부를 75~80%의 정확도로 예측
  - 조산으로 출생된 아기들은 37주를 다 채워 태어난 아기들보다 출생 시와 출생 이후 모두 치명적 질환과 합병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조산을 예방하는 것은 의학계 특히 산부인과계의 큰 과제
    - \* 지난 '10년 전 세계에서는 1천5백만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
  - 연구팀은 향후 추가 연구에서 정확성이 재확인되면 이 혈액검사법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조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Medical News Today, 2012.09.17]

## 일 예자이, 미 사빈연구소와 소외열대질환 백신 개발 제휴

- 일본 예자이는 미국 사빈백신연구소(Sabin Vaccine Institute)와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 : NTD) 백신 개발 제휴를 체결
  - 예자이는 남미 등에서 유행하는 샤가스병(Chagas disease) 관련 정보와 백신의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첨가제를 사빈에 제공하며, 사빈은 백신을 실제 개발하기로 합의(백신 효과 검증은 예자이가 담당)
    - \* 샤가스병은 기생충의 일종인 크루스파동편모충(Trypanosoma cruzi)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1천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
  - 한편 예자이를 비롯한 세계 13개 제약업체와 미국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BMGF), 미국국제개발처(USAID), 세계은행 등은 지난 1월 오는 '20년까지 샤가스병 등 10종의 열대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
    - \* 예자이는 이 외에도 '13년부터 '20년까지 총 22억정의 필라리아증(filariasis) 치료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무상으로 제공해 개도국 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日本經濟新聞, 2012.09.12]

## 미 IFF, 싱가포르에 첨단 향수 공장 설립

- 미국의 방향제· 향수 제조업체인 IFF(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가 싱가포르 최대 공업지대인 주룽섬(九龍島) 1만2천m<sup>2</sup> 부지에 **첨단 향수 공장을 설립**
  - 이번 공장 설립은 '11년 초 IFF가 향후 3년간 총 1억불 이상을 아시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 IFF는 싱가포르가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유지하는 등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비했다며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
  - 새 공장은 2만Mt의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양질의 방향제와 향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 \* 또 자동공정을 통해 공업용수· 에너지· 세제류 등 사용을 대폭 절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IFF는 현재 32개국에서 5천6백여 종업원을 보유 [Heraldonline, 2012.09.17]

## 영 에보큐티스, 화장품 동물실험 대체 도구 ‘랩스킨’ 개발

- 영국 생명공학 업체 에보큐티스(Evocutis)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도구 ‘랩스킨(LabSkin)’**을 개발
  - 랩스킨은 화장품 개발을 위한 첨단 실험실 연구와 임상시험에 사용가능한 ‘**전층 인간피부 동등모델(full thickness human skin equivalent model)**’로, 화장품이 인간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
  - 랩스킨은 기존 3D 피부모델과 달리 **△표면에 직접 도포할 수 있고 △인간피부와 유사한 방어막 기능이 있으며 △표면 면적이 4.5cm<sup>2</sup>로 사용이 쉽고 △10~14일 동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 기존 실험용 피부모델의 경우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다, 각종 용액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방어막 기능이 제한적이고, 실험이 가능한 기간도 매우 짧다는 문제점이 지적
  - 에보큐티스는 랩스킨이 기초응용 피부연구, 구조대사생리학적 연구, 피부통과 및 전달, 전임상 유효물질 탐색, 각종 원료성분 및 제품 효용성 분석 등 다양한 실험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 [Cosmetics Technology, 2012.09.14]

## 신규보고서

### 일본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제언

- 일본무역회(日本貿易會)는 '12년 9월 월보에 발표한 “일본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日本のメディカルサービスの現状と課題)’ 보고서를 통해 일본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
  - 무역회는 의료서비스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가 완화되고 연구의 무게중심이 기초의학에서 응용의학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문화적 요인이 존재
  - 제도적 요인은 일본 정부가 주식회사의 병원 경영을 금지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가격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
  - 문화적 요인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사활을 걸고 의료기관을 경영한다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으로, 이 경우 의료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일본 의료서비스가 개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문화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며 이는 정부와 의사 및 의료 종사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조업이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가능
  -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은 국공립 병원들이 독립법인화 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경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장기차입금 잔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에서 입증
    - \* 일본 내 국공립 병원 수는 지난 '86년 234개에서 현재 144개로 감소
  -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연구 중심을 기초의학에서 응용의학으로 이전하고 전자의료기록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PACS) 구축 등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요구
    - \* 이는 의료서비스 IT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동참함을 의미

## 영국 네일케어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민텔(Mintel)사는 '12년 9월 발표한 ‘영국 화장품 시장 네일케어 분야(All polished up - nail make-up steals the show in UK cosmetics market)’ 보고서에서 영국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네일케어 분야의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분석
- '11년 영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13억8천만 파운드로 전년(12억8천만 파운드) 대비 8% 이상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14억4천만 파운드로 다소 주춤하겠지만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
  - '11년에는 페이스케어, 아이케어, 립케어, 네일케어 등 모든 부분의 성장률이 준수한 가운데, 특히 네일케어 분야는 '10년 1억7천9백만 파운드 규모에서 '11년 2억2천1백만 파운드 규모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
    - \* 네일케어 분야의 급성장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네일케어 분야는 지난 '08년 유럽 전체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2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네일 바니시(nail varnish) 제품의 경우 '07년에는 52%의 여성들이 사용했으나 '11년에는 61%로 급격히 높아져 이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
  - 네일케어 분야에서는 그동안 프랑스풍의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매니큐어 스타일에서 탈피, 보다 섬세하고 과감한 스타일이 인기
    - \* 두가지색 매니큐어를 동시에 바르거나, 고전적인 붉은색 위주의 색조에서 직물(ombre)이나 금속을 연상시키는 색조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성이 확산
- 영국 화장품 시장에서 헤어케어, 보디케어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네일케어를 중심으로 한 색조화장품의 역동적 성장세가 뚜렷한 배경에는 △활발한 신제품 개발 △색조화장품 마니아 증가 △자신감을 표현하는 패션 트렌드 등이 존재
  - 올해 영국 화장품 시장에서 발매된 신제품 중 색조화장품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중저가 제품보다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저
  - 한편 민텔사 조사 결과 80%의 여성들이 색조화장품으로 화장했을 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색조화장이 경기침체 아래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식임을 시사